

“논란의 제주 관광물가 객관적 지수 필요”

어제 코로나 엔데믹시대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세미나 고선영 책임연구원 “업종별로 객관적인 물가 측정 필요” 흥성화 교수, 중국 관광객 유치 위한 야간경제 도입 제안



20일 제주관광공사 웰컴홀에서 ‘코로나19 엔데믹 시대,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관광물가지수 개발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국기자

“바가지” “비싸다”라는 논란이 제기된 제주의 관광 물가. 제주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주와 국내, 해외의 관광 물가를 비교할 수 있는 제주관광물가지수를 개발해 제주관광물가 수준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오후 제주관광공사 웰컴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제주관광협회가 마련한 ‘코로나19 엔데믹 시대,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고선영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데이터로 보는 제주 관광 물가 실태와 대응’이라는 주

제발표를 통해 “제주관광 불만족 사유 1위가 높은 물가이지만 개별 품목 가격의 등락폭과 방향이 달라 종합적 가격 수준을 알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책임연구원은 지난 2020년 발표한 제주관광공사의 제주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 관광의 물가 인식과 물가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제주는 음식, 숙박, 콘텐츠, 관광지, 교통 등 대부분 항목에서 ‘물가가 비싸다’라는 인식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서비스 가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의미하는 물가 만족도 역시 높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렌터카와 골프 등 가격 탄력성이 높은 항목에서 제주관광 물가에 대한 관광객들의 불만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고 책임연구원은 “관광객들은 전반적으로 제주의 유명 관광지 주변 상권에 대해 여행 전·후로 모두 물가가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세부업종별 관광 물가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흥성화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엔데믹 시대의 제주관광 현황과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관광 중심의 야간경제를 제주에서도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흥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가 진행되면서 돌파구의 하나로 야간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도시가 늘고 있다”며 “관광 중심의 야간경제에 익숙한 국내의 주요 도시 MZ 세대 유치를 위해 제주 역시 야간경제와 관련된 관광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제주관광이 새로운 봄을 여는 대도약’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관광은 (전문가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가야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성장시키는 시대는 다 와버렸다”며 “관광 전문가의 목소리는 조금 낮추고 현장에서 일하는 산업 일꾼들을 더 격려하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대전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관광 전문가라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 제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드디어 대중교통도 마스크 해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 첫날인 20일 제주국제공항 도착장 대부분의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친환경농업 직불금 4월 말까지 접수

사업 기간 이행 사항 확인 후 12월 지급 예정

제주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일반 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고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이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직불금은 유기·무농약 등 인증 단계와 재배 품목을 구분해 지원이 이뤄진다. 1ha당 지원 단가는 과수 작물의 경우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다. 채소 등 기타 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을 지급한다. 유기 지속의 경우에는

과수 작물 70만원, 기타 작물은 65만원을 받는다.

제주시는 신청 농가들에 대해 사업 기간인 전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농업 이행 사항이 확인되면 오는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ha 이상 5ha 이하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친환경인증 받은 283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직불금 2억3500만원을 지원했다.

2022년 기준 제주시지역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는 711곳에 이른다. 재배 면적은 1078ha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최근 3년간 친환경 인증 농가는 2020년 754곳, 2021년 737곳 등 감소세를 보였지만 재배 면적은 2020년 1027ha, 2021년 1039ha 등으로 늘었다. 전선희기자

송산서귀마을회장 선거 법적 비화 조심

비대위 “임원선거 불공정 무효·철회... 가져분 신청” 회장 측 “마을회 차원 대책 마련 법적 맞대응 할 것” 시 “절차상 하자 행위 당연 무효... 통장 임명 보류”

서귀포시 송산서귀마을회장 선거에 따른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송산서귀마을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일 서귀포시청을 찾아 시장 면담에 이어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7일 마을회 총회에서 이뤄진 임원(회장·부회장·감사) 선출은 불공정 날치기 통과로 무효이며 이를 철회하

고, 외부 감사를 통해 마을의 전반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총회 날, 주민들이 인정 않은 부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라며 ‘회장 임후보자가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 현 마을회장이 자동으로 연임한다’며 투표나 주민의 사(수령) 없이 이를 통과시켜버렸다”며 “총회인데도 감사보고서가 없어 정상적인 감사도 이뤄지지 않

았다. 마을회 회칙도 총회를 통해야 하는데 무단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위는 “현직 회장은 지난 10여년간 이미 행정에서 보상이 이뤄진 자구리해안의 토지 2필지를 주차장과 주택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공무원과 연관된 폭행사건으로 마을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임원선출 절차 하자에 따른 가져분 신청과 함께 비대위 차원에서의 마을회의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화통화에서 마을회장 A씨는 “마을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며 “공무원 폭행사건도 당시 현장에 목격자 2

명이 더 있는데 (자신은)피해자일 뿐이며, 시우지 무단사용도 주차장 부지는 공용으로 사용하고, 현재 주택 부분은 배우자(아내)의 명의로 된 엄연한 사유재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의 ‘회장 후보 자격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당사자들이 직접 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며, 임원선출은 마을회의 회칙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비대위와의 간담회에서 이종우 시장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위는 당연 무효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적 통장으로)위촉을 할 수 없다”며 “지역주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백국기기자 haru@ihalla.com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을·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애 토양 소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 Tel: 745-8900, HP: 010-9258-7508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 전량 좋은 신종품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 향, 껍질 벗기기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료 색상이 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자호)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친해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에 성숙하며 과실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몬**: 함량 및 높이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절로 평가되는 품종.
-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친해향, 황금향, 유라조생, 공천, 흥진, 키라향, 산화향(흰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허귤, 팔삭, 세미봉, 금귤,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내산 행사묘목 판매(신규 2022-202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 사전예약 주문생산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종품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 991번길1(수산리735) |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